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결별할 것인가?

‘분열’이 필요할 때

언제 연합하고 언제 분열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이다. 이에 대한 올바른 대답을 얻으려면 솔로몬 같은 사람의 지혜가 필요하다. 그저 대충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든 연합은 좋고 모든 분열은 나쁘다고 결론 내린다. 그러나 이 문제를 아주 편하게 해결하려는 이런 태도는 역사의 교훈을 무시하는 것이며, 인간의 삶을 지배하는 정신적 법칙을 간과하는 것이다. 선한 사람들이 모두 연합을 지지하고 악한 사람들이 모두 분열을 지지한다면, 또는 그 반대라면 우리가 고민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연합시키시고 마귀는 언제나 분열시키신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뒤죽박죽된 이 혼란스런 세상에서 우리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일이 쉬울 것이다. 하지만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는 않다. 마땅히 나누어야 할 것을 나누고, 마땅히 연합해야 할 것을 연합하는 것은 지혜가 해야 할 일이다. 이질적인 요소들을 합치는 것은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선한 것이 못 되며, 동질적인 요소들을 제멋대로 나누는 것도 역시 선하지 못하다. 오늘날의 세상에서는 뚜렷함을 좀처럼 찾아보기 힘들다. 인류는 타락한 존재이고, 죄는 혼란을 가져왔으며, 밀이 잡초와 함께 자라고, 양과 염소가 공존한다. 의인의 농장과 불의한 자의 농장이 나란히 있고, 선교회 건물 옆에 술집이 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그렇지 않을 것이다. 양과 염소가 나뉘고 밀과 잡초가 구분되는 때가 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빛과 어둠을 나누실 것이고, 만물은 그 종류대로 모일 것이다. 잡초는 잡초끼리 모아 불 속에 던져질 것이고, 밀은 밀끼리 창고로 들어갈 것이다. 흐릿함이 안개 걷히듯 걷히고, 모든 것들이 뚜렷이 드러날 것이다. 지옥이 속속들이 드러날 것이고, 천국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들 모두의 유일한 본향으로 드러날 것이다. 우리는 그때가 올 때까지 인내하며 기다린다. 그렇다면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 각 사람이 반복적으로 던져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교회가 존재하는 곳이라면 인간 사회 어디에서나 끊임없이 제기되어야 할 질문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무엇과 연합하고 무엇과 결별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다(물론, 이 질문 안에는 공존의 문제가 아니라 다만 연합과 교제의 문제가 포함된다). 무조건 연합? 밀과 잡초가 같은 장소에서 자라지만, 이 둘이 교차 수분(受粉)할 것인가? 양과 염소가 서로 가까운 데서 풀을 뜯어먹는다고 이 둘의 이종교배(異種交配)를 시도할 것인가? 의로운 자들과 불의한 자들이 동일한 햇빛과 비를 즐겨워하지만, 서로간의 깊은 도덕적 차이를 망각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런 질문들에 일반 사람들은 “그렇다”라고 대답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할 것이다. “무조건 연합하고 보라. 그러면 결국 사람들이 형제가 될 것이다. 사람들을 갈라놓을 만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 없다. 그러므로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연합을 이루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의 결혼을 기념하는 잔치를 벌이고자 진리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지하지 않는 연합의 개념을 옹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제물로 바친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을 받은 교회는 이런 사람들처럼 되지 않는다. 이 타락한 세상에서, 연합은 진리를 훼손하면서까지 추구해야 할 보물이 아니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진리에 충실하며, 선한 양심을 지키는 것이 오빌(Ophir)의 금이나 광산에서 캐낸 다이아몬드보다 더 귀하다. 이토록 귀한 것을 지키기 위해 신앙인들은 재산의 물수나 감옥살이, 심지어는 죽음까지도 감수했다. 최근에도 이 보물을 지키기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헌신하며 조용히 죽어간 그리스도인들이 있다.

- A. W. 토저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중에서-



창립 1974년 11월 3일

주보 제 45권 21호 2019년 5월 26일

* 표는 일어섬 (Standing if you can)

사회: 기우석 집사

시작기도 (Opening Prayer)

사회자

경배와 찬양 (Praise)

One Thing Praise
Malena Towers 선교사

설교 (Sermon)

사도행전 2:2
Acts 2:2

Darlene Line 선교사
통역: 박태열 목사

“(Pentacost/Shavuot) Meeting with the Lord”

봉헌 (Offering)

봉헌특주 (Offering Special Music)

연석윤 집사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박태열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s)

사회자

파송찬양 (Closing Hymn)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다같이

* 축도 (Benediction)

박태열 목사

[주일예배 안내]

주일대예배 / 11am
주일학교 / 11am
중고등부예배 / 11am

[주중예배/모임 안내]

새벽예배 / 5:30am(화-토)
Acts29 기도 / 6am(주일)
수요예배 / 8pm
속회 / 매달 1회 셋째주
성인성경공부 / 1pm(매달 첫째, 셋째주일)
한국학교 / 3pm-6pm(토)

[정기기도모임 안내]

남산교회새벽기도모임 / 5:30am
(매달 첫째주 토요일)
선교부기도모임 / 7pm(매달 둘째주 화요일)

[다음주일 대표기도]

이건형 장로

교회 / 교우 소식

오늘 처음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 ◆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 ◆ 드라마 바이블 커뮤니티 성경읽기 모임이 5월 28일 화요일 아침 10시에 있습니다.
- ◆ 라인덴스 강습이 5월 28일 화요일 아침 11시에 있습니다.
- ◆ 정기제직회의가 6월 2일(일)에 있습니다.
- ◆ 6월 9일 주일예배에 담임목사님께서 갈보리연합감리교회에서 주일설교 하시고 도상원 감리사님께서 오셔서 말씀전해 주십니다.
- ◆ 야외예배가 6월 16일(일) 교회 잔디밭에서 있습니다. 편안한 복장으로 11시까지 오시기 바랍니다.
- ◆ 6월달은 속회 야외예배달입니다. 6월에는 속장 인도자교육 없습니다. 7월 8월은 속회방학입니다.
- ◆ 7월 8일(월)부터 19일(금)까지 연석윤 집사님 월드 밀알선교추립을 파나마로 가십니다.
- ◆ 가족수련회가 8월 10일(토)-11일(일) 1박 2일로 Sandy Cove 수양관에서 있습니다. 주제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느헤미야 8:10) 입니다. 월드밀알선교회 단장님이신 이다윗 목사님께서 강사님으로 오십니다.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기우석 집사님께 제출해 주세요.

부서별 소식

- ◆ **제단헌화헌금:** 주일예배에 제단헌화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헌화담당 스케줄에 싸인업을 하시고 헌금봉투에 "제단헌화"라고 쓰시고 내시기 바랍니다. 헌화하시는 분의 이름으로 정성껏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주일에는 \$20, 특별한 주일 (창립기념일, 부활절,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등)에 하실분은 \$35** 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최미경 집사께 해주세요.
- ◆ 친교는 최성혜 사모님께서 제단헌화는 이선희 집사님께서 섬겨주셨습니다.

[남선교회]

6월 1일 토요일 새벽예배는 남선교회 주관으로 드립니다. 예비후에 간단한 아침식사 준비됩니다.

[선교후원]

- ◆ 파송선교사 가정인 문열림 선교사, 주은혜 선교사 (기쁨, 거룩)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문열림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 ◆ 협력선교사 가정인 김희기 선교사, 박경선 선교사 (진서, 진후) 가정을 물질로 후원하실 분은 헌금봉투에 "김희기 선교사 가정"이라고 쓰시고 내시면 됩니다.

월중모임/행사

5월 28일(화) 10:00am 커뮤니티 성경읽기
11:00am 라인덴스 강습
6월 2일(일) 1:00pm 정기제직회의
6월 16일(일) 11:00am 야외예배
7월 8일(월)-19일(금) 월드밀알선교

[증보기도요청]

- ◆ 찬양사역자, 성가대 반주자, Youth 전도사, Children 전도사를 보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후원할수 있도록 재정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일 통계

헌금총액	\$3,205	출석총인원	43
십일조	\$1,260	KM 본예배	34
주정(주일)	\$510	주일학교	9
감사헌금	\$372		
선교헌금	\$550		
주일학교	\$		
제단헌화	\$	부흥회	\$510

새가족 등록절차 안내

- ◆ 남부뉴저지교회에 새로 오신 모든 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 ◆ **새가족 등록과정:** 새가족 교육 (4주)과정을 마치시고 담임목사의 심방을 받으시면 속회에 배정이 되시고 남부뉴저지교회의 등록교인이 되십니다.
- ◆ **새가족 교육일정:** 교회소식란에 교육일정을 공지합니다.
- ◆ **새가족 환영식:** 새가족 교육을 마치신 그 다음주일 본 예배시 환영식을 갖습니다.

6월 친교 / 헌화

2	윤여옥집사 / 윤경재성도
9	마경희집사 / 이미경권사
16	이미경권사 / 연선희집사
23	윤지은집사 / 윤지은집사
30	연선희집사 / 윤경재성도

교회를 섬기시는 이

담임목사: 박태열	교육협동목사: 박태익
중고등부간사: Rebecca Henry	
지휘자: 연석윤	반주자:
시무장로: 이건형	
원로장로: 이우인 최종인	
파송선교사: 문열림 주은혜 (기쁨, 거룩)	
협력선교사: 김희기 박경선 (진서, 진후)	